

우리들은 이야기를 만든다

김민지*

[서평] 김성경(2023),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 창비, 256쪽

1. 학제 사이에 낀 연구자는 어떤 형식의 글을 쓰는가

작년 11월, 한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석했다가 재미있는 순간을 경험했다. 해당 학술대회는 ‘문화연구’를 주제로 여러 전공을 지닌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 라운드테이블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참여자 중 다수가 토로하는 어려움에 대해 듣다 보니 문득 서로 닮아 있음을 깨달았다. 그 공감은 비슷한 말을 들어 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신이 쓰는 건 ○○학과 논문이 아니야.”라는 말이었다.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 분단의 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창비, 2023)의 서평에서 구태여 위의 경험담을 꺼내 보는 것은 과연 이 책의 글쓰기 방식은 어디에 속할까 궁금해지기 때문이다. 저자인 김성경은 영국 에섹스대학교에서 사회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 연구자다.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북한’과 ‘통일’을 주요 키워드 삼아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 여기서 다루는 북한학(North Korean studies)이란 ‘북조선’¹의 정치·경제·사회·문화·언어·생활 등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북한’을 명명하는 방식에 관하여 성찰적 진단이 나오고 있다. 물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북한’이라는 명칭을 택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북조선의 다양한 측면을 논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저자의 이력에서 확인되는 사회학과 북한학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실마리는 쓰기의 형태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과학적 글쓰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산문’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차용함으로써 북조선 여성들의 삶의 궤적에 가닿고자 했다”²는 저자의 말을 따라 읽는 동안, ‘분과학문’이라는 제도적 범주에 대해 새삼 떠올리게 된다.

이 책은 “북조선 여성들의 이야기는 한반도의 식민과 전쟁, 냉전과 탈냉전, 지역화와 세계화가 개인의 삶에 어떻게 중첩되어 있는지 생생하게 증언한다”(13)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 안에 저자가 연구자로서 만난 여러 북조선 여성들의 삶이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일까. 이 책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쓰는 자의 강렬한 목적의식이다. 흔히 사회과학적 글쓰기라 여겨지는 서술 방식에 “작가적 상상력”(12)을 더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저자의 의지를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에서 열린 북토크 행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저자는 박사 과정 중 Daniel Bell의 *Communitarianism and Its Critics* (1993)를 읽고 받은 충격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특히 해당 책의 독특한 구성 및 언급 형태의 서술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고 한다. 말하자면 이 충격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요구하는 글쓰기와는 다른 방식으로도 학술적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겠다는 ‘깨달음’인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여성적 글쓰기’와 같은 페미니즘의 구상과 ‘아시아의 여성 연구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중첩됨으로써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가 나온 것이다.

사정을 고려하면서, 이 글에서는 김성경의 용법을 이어받아 ‘북조선’이라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 2 김성경(2023),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 분단의 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창비, p. 12. 이후 책을 언급할 경우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로, 본문을 인용할 경우 쪽수만 표기한다.

「들어가며」에서 저자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연구자의 성찰’을 강조하는 최근의 몇몇 글들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한다. 이때 저자가 언급하는 앞선 작업 중, 디디에 에리봉의 『랭스로 되돌아가다』(이상길 옮김, 문학과지성사, 2021)와 홍명교의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베이징에서 마주친 젊은 저항자들』(뽕간소금, 2021)은 출간과 동시에 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저자는 이 책들이 사회학·인류학 연구를 특정한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연구대상과 연구자 간의 상호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혹자는 『랭스로 되돌아가다』와 같은 책을 두고 ‘유행에 불과하다’며 불만 섞인 평을 내놓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같은 글에 대한 호응은 ‘저자-연구자로서 어떤 글을 쓸 것인가/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동시대적 고민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저자는 북조선 출신 연구 참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연구자인 자신 또한 ‘연구대상’으로 포함하며 자신이야말로 크게 ‘변화’했다고 회상한다. “‘남한 출신’이라는 위치와 ‘연구자’라는 역할이 만들어내는 위계”(237)를 직시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성찰적 분석이 동반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성찰은 저자의 언급처럼 사회학, 인류학에서 이미 하나의 과정처럼 다뤄지는 중이다. 동시에 구술사 같은 연구 방법을 고려한다면 역사학이나 여성학과도 맥이 닿아 있는 연구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자가 밝히듯 이는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흐름을 접했기에 가능한 시도였다. 즉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는 한 여성 연구자가 ‘쓰기’의 형식에 대한 고민에 페미니스트로서의 문제의식을 덧입힌 결과물이다. 아마도 이 책의 부제인 ‘분단의 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연유했을 것이다.

2. ‘자아문화기술지’라는 고백 양식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1부는 기존에 알려진 북조선 여성 서사에 저자의 상상력을 더한 허구적 묘사를, 2부는 연구자로서 만난 연구참여자(인터뷰이)들과의 일화를, 3부는 ‘북한학 연구자’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보는 과정을 담고 있다.

「북조선의 살아남은 여자들」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1부는 다시 세계의 장으로 구분되며, 각 장은 누군가의 이름을 제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1장의 제목은 ‘길건설-길확실’, 2장의 제목은 ‘만자, 혜원’, 3장의 제목은 ‘수련’이다. 이에 따라 1부는 각 이름의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삶을 묘사하고 그 안에서 이들이 느낄 법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1장의 주인공 ‘건설’의 이름은 ‘천리마 시대의 여성 영웅’이라 일컬어지는 길확실의 본명에서 차용한 것이다. 다만, 저자는 1961년 출간된 길확실의 『천리마 작업반장의 수기』(직업동맹출판사)에서 확인되는 이야기에 심리적 갈등을 추가한다. 이는 2020년 조선중앙텔레비전 방영 영화 「천리마시대의 녀성영웅들: 인간개조의 선구자 길확실」에서도 찾을 수 없는 면모다. 이렇듯 여성 영웅 ‘길확실’은 오늘날까지도 북조선의 모범적 노동자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길확실의 수기에 나온 인물과 내용을 여성주의적 독해를 통해 재해석(54)”함으로써 체제 내에서는 다뤄질 수 없었던 건설의 속내를 들려준다.

2장에서 ‘만자’의 이야기가 자연스레 이어지는 것은 설정상 만자가 ‘길확실’의 작업반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만자는 ‘전쟁고아’로, “그나마 운이 좋아”(56)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 것으로 확인된다. 저자가 묘사하고 있듯이 당시 “전쟁고아들을 김일성 수상이 직접 나서서 챙긴다”(56)는 입장이 발표된 바 있지만 실상은 가족의 품에서 자라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가령 손녀가 공장에 배치된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근심스러워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만자가 성장기에 받았을 애정을 상상해보게 한다. 이는 국가의 ‘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지점이다. 사실 만자는 북조선식 사회주의 체제에서 요구하는 ‘교양’을 갖추지 못한 여성 노동자로, 동료들의

질책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2장의 이야기는 만자가 공장을 그만두는 것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던 만자는 옷, 가방 등을 손수 제작하여 판매하게 되고, 마침내 ‘패션’ 관련 여성 사업가로 거듭난다. 이후 성인이 된 만자의 딸 ‘혜원’까지 사업에 가담하면서 그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젊은 혜원이 만자 부부와 달리 “국가와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재빠르게 움직이”(67)임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무역 네트워크를 활용할 줄 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같은 모녀 이야기는 북조선 사회의 ‘시장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 끝은 ‘화폐개혁’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되어 분노한 혜원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에 비해 3장 ‘수련’의 이야기는 1장과 2장이 연속성을 띠는 것과 다르게 다소 동떨어진 듯 보일 수 있다. 수련은 4년제 대학인 ‘장철구평양공업대학’에 다니다 다른 학생들의 부유함에 이질감을 느끼고 학교를 떠나 중국에서 식당 노동자로 살기를 택하는 인물이다.³ 그러나 수련의 주변 인물로 등장하는 정화에 주목하면, “돈주의 외동딸”(90)이라는 설정에서 만자의 딸 혜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1부 각 장의 제목에 제시된 이름들 간의 관계가 아주 흥미롭게 느껴진다. 이들은 같은 공장의 노동자로 배치되거나(길건실/확실—만자), 여성 사업가로서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도 하고(만자—혜원), 새로운 세계를 찾아 국경을 넘기도 한다(혜원—수련). 즉 1부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서로의 행보를 매개 삼아 연결되

3 한편, 이 책에서 언급되는 대상은 아니지만, 수련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북조선의 작가 백남룡의 소설 『벗』(문예출판사, 1988)을 떠올리게 한다. 현실성 없는 남편의 모습에 괴로워하는 아내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백남룡의 『벗』은 ‘이혼’을 소재로 삼은 소설로, 1988년 출간 이후, 1992년 한국에서도 출판사 ‘살림터’를 통해 출간되어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2020년에는 영역본 “Friend”(Columbia University Press) 출판물 계기로 다시 화제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이러한 부부 형상은 저자 역시 참고한 ‘탈북 작가’ 설송아의 소설에도 종종 등장하는 관계로, 특히 ‘시장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서사 구성은 이야기를 따라 읽는 동안 다양한 층위의 ‘북조선 여성’의 삶을 교차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저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또한 눈길을 끈다. 1부의 각 장은 ‘인물의 이야기-저자의 말’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컨대 1장의 후반부에서는 ‘천리마 노동영웅 김확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해당 글의 마지막 문장, “이 글은 전후 시기에 갑작스레 노동자로 내몰린 젊은 북조선 여성이 경험하는 내적 갈등에 주목했다”(55)는 구절은 연구자의 목소리가 출현하는 지점이다. 이 짙막한 설명문 형태의 글은 이 서평을 읽을 독자들에게도 익숙할 ‘학술적 글쓰기’ 문법, 즉, 연구자의 거리두기를 남겨 둔 부분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저자의 말’은 서사의 원천을 밝히는 역할을 맡는다. 가령 2장의 후반부에서는 만자와 혜원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아이디어를 제공한 ‘탈북민 소설가’⁴ 설송아의 단편소설을 소개하고 있으며,⁵ 3장의 후

4 이 책은 ‘탈북민 소설가’, ‘북조선 출신 소설가’와 같은 명칭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탈북자’라는 명칭에 내재된 정치적 성격을 고려하되 독자들의 수월한 이해를 돕기 위함일 것이다. 참고삼아 덧붙이자면, 저자는 이전 책 『갈라진 마음들』에서는 ‘북조선 출신자’라는 명칭을 사용한 바 있다. 이는 “‘탈북’이라는 정치화의 논리에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이들의 고향인 북조선을 존중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었다. 김성경(2020), 『갈라진 마음들: 분단의 사회심리학』, 창비, p. 198.

5 소설 『진옥이』(2015)는 ‘탈북 기자’로도 활동 중인 작가 설송아가 소설가로서 발표한 첫 번째 작품이다. 설송아는 이후에도 「평양-신의주 로또행 열차」(2021), 「해주 인력시장」(2022) 등의 작품을 통해 ‘진옥이’라는 여성 사업가 인물을 반복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설송아의 작품들은 여러모로 흥미롭게 읽을 만한데, 개인적으로는 특히 설송아의 소설 속 ‘여성 사업가’ 인물이 ‘성분’이나 ‘가정세대’, ‘충성심’ 등의 요소를 따지지 않는 고용 체제를 상상한다는 점에 더 상세한 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비전이 완벽하다거나 현실적인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이 같은 ‘다른 체제에 대한 상상력’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와 2000년대 경제 개혁 이후의 북조선 상황을 고려할 때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진옥이’ 이야기는 소위 ‘탈북’이라 불리는 이동을 선택한 이들의 실제 경험뿐 아니라 허구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북조선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도 자세한 검토가 요청된다. 언급되는 소설들은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에서 기획한 다음의 단행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송아(2015), 『진옥이』, 『국경을 넘는 그림자』, 예음; 설송아(2021), 「평양-신의주 로또행 열차」, 『신의주에서 개성까지』, 예음; 설송아(2022), 「해주 인력시장」, 『해주 인력시장』, 예음.

반부에서는 ‘조선 영화 「한 녀학생의 일기」’의 서사를 재구성한 결과물임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이야기만 차용한 것은 아니며 저자는 자신이 연구자로서 진행한 북조선 출신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기도 했음을 함께 적어 둔다. 요컨대 이 책은 어떤 기록에 다른 허구를 더하는 셈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실험은 “시장화를 경험하며 청년이 된 세대들의 의식이나 생활방식은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웠고 개인주의적 성향도 상당”(110)하게 된 맥락과도 관련된다. ‘선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 「한 녀학생의 일기」에서는 수련이 “과학을 중시하는 당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과학자의 길을 선택”(111)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종결되지만, 저자는 그러한 김정일 시대의 ‘영웅담’을 다시 쓴다. 즉 수련의 다른 진로를 상상함으로써 기존의 영웅 서사에서 벗어난 ‘다른 삶’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2부 「경계에서 만난 여자들」에서는 저자가 연구 현장에서 마주친 사람 및 조·중 접경지역과 관련한 추억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연길’은 북조선 여성들과 조선족 이웃이 마주치는 역동적 공간으로 소개된다(4장, 5장). 하지만 저자가 설명하듯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길’은 많은 변화를 거쳤다. 따라서 더 많은 관심과 탐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이들 중 다수가 연길에 주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여기에 저자는 이전에 쓴 연구서나 논문에서와 달리 연구자로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덧붙인다. 이를테면 ‘어머니’⁶로서 아들에 대한 일화를 털어놓은 연구 참여자의 앞에서 무심코 아들을 타박하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한 후회, 연구 종료 후 연구 참여자를 다소 소홀히 대하다 오랜만에 재회

6 1부의 특징은 1장과 2장의 후반부에 나란히 ‘편지’ 형식의 글이 놓여 있는 것에서도 발견된다. 김확실이 딸에게 보내는 ‘정금에게’(1장)와 혜원이 아들에게 보내는 ‘아들아!’(2장)라는 제목의 편지글이다. 두 편지는 모두 북조선 여성들이 자식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이들의 내면을 담고 있다. 이것은 2부에 담은 북조선 출신의 ‘어머니’ 이야기의 예고편처럼 보이기도 한다.

했을 때 느낀 “부끄러움”(161) 등에 대한 고백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현지 조사를 목적으로 한 일본 오사카 방문기를 담고 있는 6장에서도 저자의 내면이 확인된다. 저자는 “자이니찌와 만날 때 나로서는 꺼내기 쉽지 않은 말이 바로 ‘북조선’이었다”(185)고 고백한다. 이는 저자의 경험담에서 확인되듯, 나와 마주하고 있는 자이니찌가 북조선에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혹은 ‘탈북민’이라는 이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의 맥락을 곧바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오사카에서도 쓰루하시라는 지역의 특성까지도 연관된다. 저자에 따르면, 이 지역은 1920년대부터 자이니찌의 거주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한국 출신 이주민들이 새로이 유입되면서 다층적인 역사를 지닌 공간이 되었다. 이곳에 누적된 시간성은 저자가 만난 한 ‘탈북 여성’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태어나 강제징용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동한 후 이곳의 차별보다는 나으리라는 판단하에 북으로 간 아버지를 비롯하여, 남편을 따라 북조선으로 갔으나 평생 일본을 그리워했다는 일본인 어머니 등 그녀의 증언은 곧 “자이니찌와 일본인 사이의 초국적 가족”(199)의 생애사인 셈이다.

인상적인 것은 자이니찌들이 모여 있는 ‘선술집’의 풍경이다. 세대에 따라 국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앞서 다룬 연길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되는 특징이지만, 이 선술집에 모인 이들은 그저 “각자의 지친 일상을 공유하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 것이라고 서로 위로하는 모습”(190)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자이니찌 연구 참여자가 서울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격’과도 겹쳐진다. 연구참여자의 구술을 통해 생애사를 써 내려가는 동안 이들은 글 밖에서도 대화를 이어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사이의 관계성은 논문 형식의 글쓰기에서는 쉽게 가시화될 수 없다.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자들이 ‘부끄러움’과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연구를 이어가야 하는 당위를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고자 할 때 되새겨 볼 만하다.

3부 「분단, 북조선 여자들, 그리고 나」에서는 ‘경계인, 연구자’(8장)라는 위치에 대한 저자의 소회가 확인된다. 먼저, 7장은 만주에서 태어나 남한으로 이주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북조선을 연구하는 며느리가 “기성세대의 적대감”(217)을 이해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8장의 논의로 이어진다. 8장에서 저자는 하딩(Harding), 해러웨이(Haraway), 정희진 등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논의를 빌려 ‘위치성’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성찰의 과정이 글쓰기 방식의 변형으로 나타나곤 한다는 점이 특별하게 다가왔는데, 저자는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성격의 글쓰기 방식을 두고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 책은 ‘소설’과 ‘연구 후기’ 사이의 어떤 글이 되었다. 이러한 허구적 서술로 인해 어떤 이들에게는 이 책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학계의 문법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자아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⁷로 받아들이면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이 생겨난다. ‘자아문화기술지’란 자기 자신을 뜻하는 ‘auto-’와 사회학, 인류학 등에서 주로 활용되어 온 ‘에스노그라피’(ethnography)를 합한 용어로,⁸ 연구자 스스로 연구 과정에 개입하는 작업을 염두에 둔 연구 방법이다. 특히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할 때 긴요한 방법론으로 꼽힌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저자의 이전 작업과 비교하면 더욱 도드라진다. 저자는 이전 책 『갈라진 마음들: 분단의 사회심리학』⁹에서 ‘북한’ 표상이 생산되고 독해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통일 혹은 남북의 통합 가능성을 ‘마

7 Autoethnography는 한국 학계에서 ‘자문화기술지’로 주로 번역되는 듯한데, 여기서는 저자의 표현을 따라 “자아문화기술지”(14)로 지칭한다.

8 사실 에스노그라피가 제국주의적 ‘관찰’과 그 결과를 기록하는 ‘기술’에서 비롯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는 꽤 문제적인 글쓰기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나름의 ‘전환’을 겪은 후 에스노그라피는 오늘날 인문사회 계열의 연구에서 각광받는 연구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9 김성경(2020), 『갈라진 마음들: 분단의 사회심리학』, 창비.

음'의 문제로 가능한 바 있다. 또 그보다 전에 출간한 공저 『탈북의 경험과 영화 표상』¹⁰에서는 '북한'이 담론화되는 방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전에도 젠더 이슈를 다루었으니 이번 책은 그러한 시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으면서도, '북조선 (출신) 여성들'의 존재론적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저자 개인의 이야기와 허구까지 덧대고 있다는 점에서 돌출적이다. 더욱이 어떤 텍스트가 표상하는 바를 읽어내고 그에 대한 '모범적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연구자로서 감각한 관계의 창발성과 고민을 가감 없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3. 삶과 삶 사이에서 마주하는 꿈들

때로는 우리가 '북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로 통일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도 '이득'이라는 주장이 나오곤 한다. 물론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선량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겠다. 그러나 이 책은 '다른 길'을 선보인다. "통일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의 경제적 실효성을 따지는 풍토"(8~9) 자체를 벗어나고자, '숫자'나 '돈'으로 증명되는 경제주의적 사고와는 다른 인식체계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남과 북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는 무척 시의적절한 시도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소중히 되짚어 볼 지점은 '그녀들', 즉, 북조선의 여성들이 지닌 '다른 성격'에 대한 서술이다. 저자는 남한 출신의 연구자로서 연구 대상자들과의 거리감을 돌아봄으로써, 이렇게 말한다. "그녀들의 위치가 그녀들을 제약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들의 눈물겨운 행위주체성은 전복성과 해방성을 시사하고 있다"(239)고. 그리고 자

10 김성경·오영숙(2013), 『탈북의 경험과 영화 표상』, 문화과학사.

신을 변화하게 만든 것은 “그녀들의 ‘이야기’들”(240)이었다고.

저자가 감사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힘은 「에필로그」에서 소개되는 ‘밥 이야기’에서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저자는 꽤 긴 시간 동안 “그녀들의 음식 이야기가 북조선의 식량난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243)”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그녀가 만난 북조선 출신의 할머니는 계속해서 ‘밥’에 대해 말했다. 자신이 북조선에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어떤 음식들을 만들어 보내는지, 그곳을 떠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 준 음식은 무엇이었는지, 할머니가 ‘업’으로서 돌보는 조선족 노인에게는 어떤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지...,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밥 이야기들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일화가 “정희 할머니라는 존재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을 응축하고 있는 것”(243)이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며, 간단히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이래로 남북의 여성들은 가족들의 밥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왔다”(244)는 공통의 역사를 되짚어 보인다. 이렇듯 이 책에 등장하는 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역사다.

그러므로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북조선 여성’만의 것이 아니다. 동시에 그것을 글로 옮겨 쓴 저자-연구자의 것도 아니다. 이것은 연구 대상자와 연구자의 얽힘의 산물이며, 동시에 이것을 읽을/읽는 독자들, 특히 북조선 여성의 삶을 살피고자 하는 독자들의 자리를 ‘이미’ 포함한 이야기들이기도 하다. 덧붙일 것이 있다면, 그 과정에 “북조선 여성들은 종종 자신들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다”(245)는 구절이 반드시 함께 놓이길 바란다는 당부다. 이는 북조선 여성들이 ‘연구대상’으로만 규정될 수 없는 존재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편으로 이 책은 한 여성 연구자가 남기는 ‘북조선 공부 후기’이기도 하다. 후기는 중요하다. 특히 ‘여성 선배라는 참조점’¹¹이 절실한 학문후속세대에게 이 후기는 더 귀한 의미를 지닐

11 이에 대해서는 김지수의 글을 참조. 김지수, 「‘여성-연구자’라는 참조점 만들기」, 『신춘문

수 있다. 오늘도 ‘우리 연구자들’은 어떤 꿈들과 만나며 다른 꿈들을 만들어 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성경(2023),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 분단의 나라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창비.
- 김성경(2020), 『갈라진 마음들: 분단의 사회심리학』, 창비.
- 김성경·오영숙(2013), 『탈북의 경험과 영화 표상』, 문화과학사.
- 김지수(2022), 「‘여성-연구자’라는 참조점 만들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5.11, <https://www.culturalpolitics.kr/post/지수-여성-연구자-라는-참조점-만들기>.
- 디디에 에리봉(2021), 이상길 역, 『랭스로 되돌아가다』, 문학과지성사.
- 백남룡(1988), 『벗』, 문예출판사.
- 설송아(2022), 「해주 인력시장」, 『해주 인력시장』, 예육.
- 설송아(2021), 「평양-신의주 로또행 열차」, 『신의주에서 개성까지』, 예육.
- 설송아(2015), 「진옥이」, 『국경을 넘는 그림자』, 예육.
- 홍명교(2021),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베이징에서 마주친 젊은 저항자들』, 빨간소금.

화정치연구그룹, 2022.5.11., <https://www.culturalpolitics.kr/post/지수-여성-연구자-라는-참조점-만들기>